“초의선사, 조주다풍 이은것 아니다”

‘옛선인다회’ 강우석 회장

‘<다신전>과 초의선사…’ 논문서 주장

초의선사 다풍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로 불리는 초의 선사(1786~1866).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초의 선사의 다풍(茶風)은 흔히 ‘끽다거(喫茶去)’로 대표되는 ‘조주다풍’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초의 선사는 조주다풍이 아닌 초의다풍을 세웠고, <다신전(茶神傳)>을 통해 이를 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옛선인다회를 이끌고 있는 강우석 회장은 최근 본사에 ‘<다신전>과 초의 선사의 차문화 중흥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내왔다. 이 논문에서 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다풍은 <다신전> 이래 잎차 중심의 초의다풍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루차와 덩이차를 중심으로 하는 조주다풍과는 맥을 달리 한다”고 말한다.

▷ 다신전이란?

<다신전>은 조선후기 초의 선사가 청나라 모환문(毛煥文)이 쓴 <만보전서(萬寶全書)>의 ‘다경채요(茶經採要)’를 등초한 것으로, 1830년 정서를 마치고 세상에 선보인 고전다서다. 이때 초의선사가 등초한 ‘다경채요’는 명나라 장원(張源)의 <다록(茶錄)>을 필사한 것이니, <다신전>의 실질적 원전은 <다록>이라 할 수 있다. 초의 선사가 일지암에서 직접 정서했다는 친필본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를 다시 필사한 것으로 추측되는 다예관본(태평양화학 다예관 소장), 법진본(전남 담양 수진 스님 소장), 이일우본(이일우 소장), 송광사본(송광사 소장), 경암본(다문화연구소 소장) 등 몇 가지 필사본들이 전하고 있다.

<다신전>은 본문 1420여자, 발문 98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를 따고 만들고 마시는 등 차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장원의 <다록>에 전하는 ‘분다합(分茶盒)’ 부분을 생략했으며 초의 선사가 직접 쓴 발문(跋文)이 붙어 있는 것이 원본과 다른 점이다.

▷ 다신전 발문에는 어떤 내용이?

강우석 회장은 “그동안 초의 선사가 직접 지은 <동다송>과는 달리 다른 다서를 옮겨 적은 책이라는 점에서 <다신전>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다신전>의 발문을 보면 초의선사가 차문화 중흥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차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초의 선사가 ‘참선을 못할 지경에서도 화롯불을 곁에 두고 정서를 계속했다(庚寅中春 休菴病禪 雪窓擁爐 謹書)’는 기록은 차문화 중흥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강 회장은 초의 선사가 발문을 통해 시대적 다풍에 맞는 올바른 다도를 정립하고자 했다는 데 주목한다. ‘총림에 조주의 다풍을 흉내를 내는 자가 있을 지라도 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叢林或有趙州風 而盡不知茶道)’는 대목은 당시 불가(佛家)에서는 ‘끽다거’로 대표되는 당나라 조주종심 선사(778~897)의 다풍이 널리 퍼져있었음에도 ‘조주다풍’의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초의 선사 당시에는 말차 중심적이고 비가시적(非可視的)·비다구적(非茶具的)·사상적(思想的)인 조주다풍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나라의 차문화에 어울리는 다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잎차 문화를 중심으로 한 명대에 쓰여진 <다록>을 필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 회장은 “초의 선사가 <다신전>의 마지막 장에서 ‘다위(장원의 <다록>에서는 다도로 기록)’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초의선사의 차정신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초의다풍’이다”고 말한다. 이 같은 초의다풍은 잎차 중심의 가시적(可視的)·다구적(茶具的)·물질적(物質的) 다풍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다풍의 골격을 이룬다고 강 회장은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 말기 제작된 작자 미상의 초의선사 영정. 공인박물관 소장.

“조주의 다풍 흉내 내는 자 있어도 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다신전’ 발문, 다도정립 의지 보여
잎차 중심 가시적·다구적 다풍 형성

도예가 김정옥씨 독일 전시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 김정옥씨(사진 · 영남요 대표)가 3월 3일까지 독일 베를린 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 갤러리에서 ‘대한민국 도예전’을 열고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다.

주독한국대사관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다기와 청화백자 등 대표작 6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경북 문경에서 7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김씨는 1991년 대한민국 도예명장에,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으로 지정됐다.

最古 차나무, 도기념물 지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로 꼽히는 경남 하동 정금리 도심다원(대표 오시영) 내 차나무가 경남도기념물 제264호로 지정됐다.

화개면 도심마을 회강이골 해발 200m 산중턱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차나무 단지에 생육하고 있는 이 차나무의 높이는 4.2m이고 지표면 부분의 나무둘레는 57㎝, 수관폭은 5.6cm로 국내 차나무 중 가장 크다. 현재 수령은 1천여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7. 보이차 속 인자보이차

보이차가 오늘날까지 신드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자보이차(印字普洱茶)의 공이 절대적이다. ‘인자(印字)’란 보이차 겉 포장지에 글자를 인쇄했다는 뜻이다.

사실 앞서 출하됐던 골동보이차에는 포장지 자체가 없었다.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진 골동보이차는 보이원차(普洱圓茶)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찻잎을 증기로 가공할 때 차상점들이 자신들의 상호와 제품에 관한 내용을 작은 종이에 새겨 찻잎과 함께 압제하였으며, 이러한 종이를 가리켜 ‘내비(內飛)’라고 한다.

제품포장을 보면 죽통으로 싼 7편의 푸얼원차에는 포장지가 없었고, 다만 7편의 푸얼원차를 죽순으로 마무리 포장할 때 상호를 가리키는 도안 및 문구를 인쇄한 큰 종이 곧 ‘내표(內票)’를 7편 중 최상단의 원차 위에 깔아 출하한 것이 이들 개인 차상점들의 공통된 포장법이다.

내비와 내표는 모두 차상점의 선전물로 사용됐으며 때로는 차의 진위를 살피는 징표로 이용되기도 했다.

보이차를 포장지로 싸기 시작한 것은 1952년 때부터이며, 중국이 공산화된 후 3년만의 일이다.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중국공산당정부는 차를 관장하는 각 지방의 국영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동시에 중국차를 대표할 수 있는 심벌마크를 정하기에 이르렀다.

1950년 보이차를 관장하는 회사는 중국차엽공사운남성공사(中國茶葉公司雲南省公司)로 개명되었고, 이듬해인 1951년 조승후(趙承煦)라는 사람이 설계한 도안인 ‘팔중차(八中茶)’가 중국 내의 모든 차상품의 공식로고로 등재된다. 상표 등록된 이 도안은 8개의 붉은 ‘중(中)’자로 둥글 원을 만들고 그 중앙에 녹색 ‘차(茶)’자를 새긴 마크로 되어있다. 여기서의 ‘중’자는 중국을 말하고, ‘팔(八)’이란 발(發)의 음을 빌려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색상에 있어 ‘중’자를 붉은 색으로 택한 것은 공산당의 상징적 빛깔과 길상(吉祥)이라는 뜻을 내포되어 있고, ‘차’자를 녹색으로 쓴 것은 찻잎의 원색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팔중차’로고가 탄생된 후 보이차는 모두 개별 포장되어 출하됐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개인 차상점곧 무포장지 보이차 제품의 근거지가 이무(易武)였다면 공산화 이후 국영업체의 포장지 있는 보이차 제품의 중심지는 맹해(勐海)였다는 점이다.

인자를 대표하는 보이차로는 홍인(紅印), 녹인(綠印), 황인(黃印) 등 제품이 있다. 이러한 명칭은 출시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후일 시장상인들에 의해 붙여진 상품이름이다. 그냥 보이원차로 출하됐던 차를 어째서 색깔로 새로이 분류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그 연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쇄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5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생산되었던 인자급 보이차의 포장지에는 사실 2가지 색상밖에 없다. 팔중차 로고 중 ‘차(茶)’자만 녹색으로 될 뿐 남은 글자는 모두 붉은 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출하된 보이원차 상품에서 ‘차’자를 비롯해 포장지 전체를 붉은 색으로 인쇄했던 것은 당시의 낙후된 인쇄기술과 작업자의 나태한 자세에서 비롯된 합작물이다. 이러한 잘못된 포장지의 인쇄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때의 상품을 후일 ‘홍인’이라 명하게 된다. 이후 포장지의 ‘차’자를 원안대로 녹색으로 인쇄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녹인’이라 불렀고, 이어 잉크 배합비율의 실수로 인해 ‘차’자가 노란색을 띈 것을 ‘황인’이라 했다. 그리고 홍콩의 상인들이 붙인 ‘녹인’이라는 이름이 타이완 사람에게 건너가 ‘남인(藍印)’으로 불리어 또 한 차례 변신하게 된다.

홍인과 녹인의 차맛은 다르다. 이는 인쇄지와 글씨체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찻잎은 농작물이기에 해마다 품질이 같을 수가 없고 찻잎의 원료와 배합비율에서 생긴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서대학교

中 공산화 이후 ‘팔중차’로고 붙여 포장
인자급도 인쇄지 · 글자체 따라 맛 달라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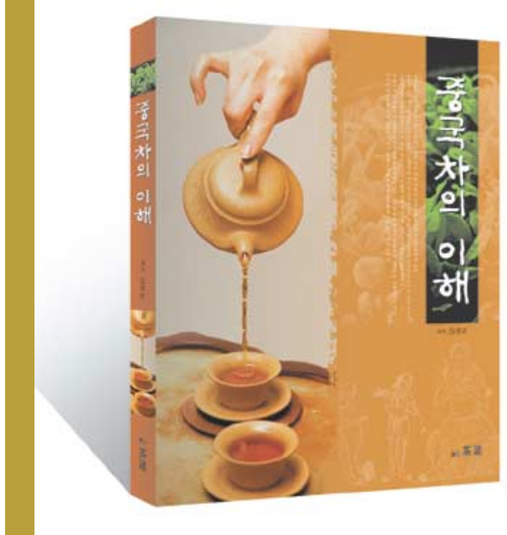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컬러(183×235), 288페이지
가격 : 24,000원
저자 : 김경우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